

司馬光의 詠史詩*

吳憲必**

<목 차>

1. 緒論
2. 司馬光 詠史詩의 내용
 - 2.1 역사 사건 평가
 - 2.2 역사 인물 품평
 - 2.3 인생무상 기탁
3. 結論

1. 緒論

司馬光是 北宋 시대의 정치가이며, 思想家인 동시에 史學家이며 文人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면모 중에서도 司馬光是 史書인 저작 《資治通鑑》을 저술한 史學家로서의 이미지와 업적이 크게 부각되었고, 당시 北宋 文壇의 歐陽修·蘇東坡·王安石·黃庭堅 등의 높은 명성에 가려 있었기 때문에 문인으로서는 문학 비평가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司馬光에 대한 평가와 연구는 史學的 측면에서의 연구에 비해 문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매우 미미하게 진행되어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80권의 《司馬文正公傳家集》¹⁾ 중에는 制詔 46편, 表 36편, 奏章 390편, 書啓 78편, 論·義·評 63편, 序 25편, 記

* 본 연구는 2012년도 덕성여자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司馬光, 《司馬文正公傳家集》, 臺灣商務印書館, 1968.(이하 書名만 밝힘)

10편, 傳 5편, 題跋 4편, 疑孟 11편, 迂書 41편, 碑·誌·行狀·墓表·哀辭·祭文 68편과 古賦 3수, 古詩 275수, 律詩 750여 수 등 詩가 1,030여 수 수록되어 있으며, 적지 않은 文學論을 주장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北宋 文壇에서 문장가·시인으로서의 그의 위상은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²⁾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司馬光의 문학적 위상을 평가하는 선행단계로서 <司馬光의 詩觀과 社會詩>³⁾, <司馬光의 洛陽 隱逸時期 詩>⁴⁾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후속 연구로 本稿에서는 司馬光의 詠史詩 작품을 고찰함으로써 시인으로서의 위상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특히 史學家로서 《資治通鑑》이라는 역작을 남긴 점에 착안하여, 《資治通鑑》에서 평가된 역사 사건, 역사 인물 등이 그의 詠史詩 속에서는 어떻게 形象化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데 本稿의 집필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司馬光 詠史詩의 내용

중국문학에서 詩歌와 歷史는 《詩經》 이래, 매우 밀착되어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시인들은 詠史詩 속에서 문학의 언어와 史論의 筆法으로 形象思惟와 論理思惟를 有機的으로 결합하였는데, 詠史詩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形象이 있고 議論이 있으며 詩歌와 역사가 하나로 溶合되었던 것이다.⁵⁾ 특히 史學家인 司馬光에게 있어서는 역사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史書 《資治通鑑》을 남게 되었고, 詠史詩를 통하여 역사 사건·역사 인물 등을 재조명하여 以古鑑今하고자 하였다. 司馬光의 詠史詩는 40여 首에 불과하지만, 섭급한 역사 사

2) 拙稿, <司馬光의 詩觀과 社會詩>, 《中國學論叢》 39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3. 2. 96쪽.

3) 上同.

4) 《中國學論叢》 41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3. 8.

5) 羊春秋, 何巖 選註, 《歷代論史絕句選》, 湖南文藝出版社, 1991. 3쪽 참조.

건과 역사 인물은 적지 않다. 이 장에서는 司馬光의 詠史詩 작품의 내용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그의 역사 인식이 어떻게 詠史詩 속에 流露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역사 사건 평가

司馬光은 역사상 큰 사건이나 후대에 논쟁거리가 된 사건을 詠史詩의 중심 題材로 삼고, 역사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以史鑑乎하고자 하였다.

먼저 <龍門>⁶⁾에 초점을 맞춰보자.

石樓臨晴空,	돌 누각 맑은 하늘과 마주하고
南眺出千里.	남쪽으로 천리를 바라보네.
人憐山氣佳,	사람들은 산 기운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지만
予歎禹功美.	나는 우임금의 공적이 훌륭하다고 감탄하네.
想彼未鑿時,	생각건대 아직 (산을) 뚫지 않았을 땐
極目皆洪水.	눈에 보이는 한 모두 홍수였다네.
誰知耕桑民,	누가 알리오? 농사짓고 양잠하는 백성들이
幸免魴與鯉.	다행히 방어와 잉어 신세를 면할 수 있었음!

이 시의 제목 龍門은 지금의 河南省 洛陽市 남쪽에 있는 산으로, 司馬光은 龍門山의 石樓에 올라 멀리 조망하며, 그 옛날 夏나라 禹임금이 龍門山을 뚫어 홍수를 방지한 治水 업적을 기리고 있다. 백성들을 홍수의 자연재해로부터 구제한 禹임금의 愛民精神을 표양하면서, 시인 자신 역시 忠君愛民의 마음으로 救民救國하는 관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謁三門禹祠>⁷⁾에서도 禹임금의 仁政에 대해 경탄하며 尊崇을 표시하였다.

6) 司馬光 撰,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李之亮 箋註, 巴蜀書社, 2008. (이하 書名만 밝힘), 296쪽.

7)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246쪽.

信矣禹功美,
獨兼人鬼謀.
長山忽中斷,
巨浸失橫流.
迹與天地久,
民無魚鱉憂.
誰能報盛德,
空爾薦謬差.

믿을 만하구나! 우임금의 공적이 훌륭한 것을!
유독 남달리 뛰어나 사람과 귀신과 도모했네.
긴 산이 홀연히 복판이 잘리고
큰 못이 제멋대로 넘치는 물을 끊었네.
업적은 천지와 함께 영구하고
백성들은 물고기와 자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네.
누가 성대한 덕에 보답할 수 있으리요?
부질없이 탁주를 받칠 뿐이네.

이 시에서는 禹임금의 治水에 대한 업적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탁월한 지혜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산을 뚫어 강의 흐름을 분산시킴으로써 백성들의 홍수에 대한 우환을 없애준 禹임금의 愛民情神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漢代 王昭君의 出塞 故事를 소재로 한 王安石의 <明妃曲>에 대한 和作詩인 <和王介甫明妃曲>⁸⁾에 초점을 맞춰보자.

胡雛上馬唱胡歌,
錦車已駕白囊駝.
明妃揮淚辭漢主,
漢主傷心知奈何.
宮門銅環雙獸面,
回首何時復來見.
自嗟不若往巫山,
布袖蒿簪嫁鄉縣.
萬里寒沙草木稀,
居延塞外使人歸.
舊來相識更無物,
只有雲邊秋雁飛.
愁坐泠泠調四弦,
曲終掩面向胡天.

오랑캐 아이 말 타서 오랑캐 노래 부르고
비단 수레엔 이미 흰 낙타를 매었네.
명비 눈물을 뿌리며 한나라 임금과 이별하는데
한나라 임금의 아픈 마음을 어찌 알리오?
궁문의 청동고리에 새겨진 한 쌍의 짐승 얼굴
뒤돌아 보는데, 언제 다시 와서 볼 수 있을까?
스스로 탄식하노니, 무산⁹⁾에 가서
무명 소매 쑥 비녀하고 시골로 시집가느니만 못함을!
만리 차가운 사막엔 초목이 드물고
거연¹⁰⁾ 변방 밖은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네.
옛날부터 낯익은 사물은 더구나 없고
단지 구름가를 가을 기러기가 날아다닐 뿐이네.
시름겹게 앉아 냉랭히 비파 타는데
곡이 끝나자 얼굴을 가리고 오랑캐 하늘을 쳐다보네.

8)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183쪽.

9) 山名으로 王昭君의 고향이다.

10) 지금의 甘肅城 서북쪽에 있었던 古城.

侍兒不解漢家語，
指下哀聲猶可傳。

시동이 한족어를 알지 못하니
손가락으로 슬픈 소리를 전할 수 있을 뿐이네.

妾身生死知不歸，
妾意終期寤人主。
目前美醜良易知，
咫尺掖庭猶可欺。
君不見
白頭蕭太傅，
被讒仰藥更無疑。

이내 몸 살아서도 죽어서도 돌아갈 수 없음을 아노니
이내 뜻은 임금에 깨우치기를 바랄 뿐이오.
눈 앞의 아름답고 추한 것은 능히 알기 쉽지만
지척의 황궁 옆 궁전은 오히려 속을 만했네.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백발의 소태부가¹¹⁾
참소당하여 독약을 먹은 것은 더 더욱 의심할 바 없음.

王安石의 詩 작품 중에서 이 <明妃曲> 詩 만큼 널리 인구에 膾炙되고 비평의 대상이 된 작품도 없다. 王安石 以前の 시인들은 대부분 虛構性이 짙은 《西京雜記》의 故事에 근거하여 明妃의 哀怨을 畫工 毛延壽의 탓으로 돌리며 毛延壽를 罵倒하는 데 급급하였던 반면에, 王安石은 이를 翻案하여 新意를 창출해 냈던 것이다.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은 王昭君의 意態美는 아무리 솜씨가 뛰어난 畫工이라도 그려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毛延壽가 贖罪羊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意態由來畫不成, 當時枉殺毛延壽) 元帝의 昏愚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¹²⁾ 司馬光도 이 和作詩에서 “이내 몸 살아서도 죽어서도 돌아갈 수 없음을 아노니, 이내 뜻은 임금이 깨우치기를 바랄 뿐이오.” 라고 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체념하고, 漢 元帝가 自省하여 현명한 황제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는 王昭君의 우국충정이 절실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어서 結尾에서는 漢 元帝가 환관 弘恭과 石顯의 참소를 믿고 노년의 충신 蕭望之를 핍박하여 자살하도록 한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昏君으로 인한 나라의 몰락을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 사실상 西漢은 병약하고 昏愚한 元帝의 무능으로 인하여 元后의 친정인 王氏가 외척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元帝의 뒤를 이은 成帝·哀帝·平帝 등도 나약하고 단명함으로써 元后의 조카인 王莽

11) 西漢 宣·元帝 때의 丞相으로, 곡물 납입에 의한 贖罪制에 반대하는 등 도덕주의적 입장에서서 환관의 전횡을 막아 제도를 개혁하려 했지만 申書令 弘恭과 石顯의 모함에서 자살했다.

12) 拙著, 《王安石 經世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262-265쪽 참조.

이 왕위를 찬탈하여 新나라를 건국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西漢의 시대는 종지부를 찍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어서 <詠史 其三>¹³⁾를 살펴보자.

春風三閣上,	봄 바람이 삼각 ¹⁴⁾ 에 부니
珠翠日紛紛.	진주와 비취가 햇빛에 현란하네.
樂飲陶江月,	즐겁게 마셔 강가 달빛에 도취하는데
清歌遏海雲.	맑은 노래 소리가 바다 구름을 멈추게 하네.
醉中失陳國,	취중에 진나라를 잃고
夢裏入隋軍.	꿈 속에서 수군의 수중에 들어갔네.
玉樹庭花曲,	옥수정화곡은 ¹⁵⁾
淒涼不可聞.	치량하여 들을 수가 없구나!

이 시는 陳 後主가 寵妃 張麗華와 누각에서 음주가무에 빠졌을 때, 隋나라 장군 韓擒虎가 金陵의 朱雀門 밖에서 공격하여 陳을 멸망시킨 역사 사건을 제재로 삼고 있다. 醉生夢死하다가 亡國을 초래한 陳 後主의 昏庸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讀漢武帝紀> ¹⁶⁾에서도 황제의 昏愚에 대한 비판은 예리하다.

方士陳仙術	방사가 선술을 말하면
飄飄意不疑。	가볍게 뜻을 의심하지 않았네.
雲浮仲山鼎,	구름은 중산의 寶鼎을 두르고
風降壽宮祠。	바람은 수궁사에 이르렀네.
上藥行當就,	仙藥은 응당 구하려 가야했고
殊庭庶可期。	仙宮에서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네.
蓬萊何日返,	봉래에서 언제 돌아올까?
五利不吾欺。	오리장군이 나를 속인 게 아닌가!

13)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344쪽.

14) 南朝 陳 後主가 세운 臨春·結綺·望仙의 세 누각. 호화롭게 꾸며 後主는 臨春閣에, 張貴妃는 結綺閣에, 龔·孔 두 貴賓은 望仙閣에 머물며 서로 향락을 즐겼다 한다.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344쪽. 참조)

15) 陳 後主가 지은 <玉樹後庭花>를 가리킨다.

16)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346쪽.

이 시는 方士의 장생술을 믿고, 方士의 무리인 五利將軍 欒大 등의 속임에 빠져서 불로장생약을 구하도록 한 漢 武帝의 우매함을 비판하고 있다.

司馬光의 仙術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示道人>¹⁷⁾에서 더욱 날카롭다.

天覆地載如洪爐，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는 것은 큰 용광로와 같고
萬物死生同一途。	만물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의 길로 똑같네.
其中松柏與龜鶴，	그 가운데 송백과 거북이와 학도
得年稍久終摧枯。	수명이 조금 길지만 마른 나무가 꺾이는 것처럼 다하네.
借令真有蓬萊山，	가령 진실로 봉래산이 있다 할지라도
未免亦居天地間。	또한 천지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네.
君不見，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太上老君頭似雪，	태상 노군 노자의 머리가 흰눈 같은데
世人浪說駐童顏。	세상 사람들은 낭설로 여전히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의 第一・二句에서는 천지는 광대하지만 큰 용광로와 같아서, 만물은 천지 사이에서 쇠가 鍛鍊되듯이 온갖 희노애락을 겪으며 절차탁마해야 하며, 만물은 必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 不老長生을 부인하고 있다. 第三・四句에서는 만물 가운데 장수한다고 하는 송백과 거북이와 학마저도 결국은 죽게 마련인데, 이것들에 비해 더욱 짧은 인간의 수명은 연장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第五・六句에서는 蓬萊山 등에서 仙藥을 구하고자 하는 일도 미신적인 것으로, 허무맹랑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第七・八句에서는 道教에서 老子를 太上老君이라 존송하며, 童顏으로 늙지 않는다고 믿었던 사례를 들면서 仙術에 대한 강한 諷刺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戲下歌>¹⁸⁾를 살펴보자.

項王初破函關兵，	항왕이 처음 함곡관의 군대를 무찌를 때
氣壓山河風火明。	기세가 산하를 압도하고 바람따라 불도 밝았네.
旌旗金鼓四十萬，	깃발, 종과 북 소리 속 40만 군대
夜泊鴻門期曉戰。	밤에 홍문에 머물며 새벽 전투를 기약했네.

17)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286쪽.

18)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22쪽.

關東席卷五諸侯，
沛公君臣相視愁。
幸因項伯謝前過，
進謁不敢須臾留。
椎牛高會召諸將，
寶劍泠泠舞席上。
咸陽灰燼義帝遷，
分裂九州如指掌。
功高意滿思東歸，
韓生受誅不復疑。
區區蜀漢遷謫地，
縱使倒戈何足爲。

함곡관 동쪽으로 다섯 제후를 석권하니
패공과 신하들은 서로 걱정스레 쳐다봤네.
다행히 항백의 권유로 (패공은 항우에게) 사죄하고
나아가 알현했으나, 잠시도 머무를 수 없었네.
소를 잡고 성대한 연회를 열어 모든 장수들을 초대하고
보검이 휘휘하며 연회 자리에서 칼춤을 췄네.
함양이 불에 타자 의제는¹⁹⁾ 도움을 옮기고
분열된 구주가 손바닥 같았네.
공은 높고 의기가 충만했지만 동쪽(고향)으로 가려고
(만류하던)한생이 죽음을 당했음은 의심할 바가 없네.
구차하게 蜀郡과 漢中이 유배지가 되었으니
설령 배반한다 할지라도 무엇이라 할 수 있으랴!

이 시의 제목에 보이는 戲下는 바로 戲水의 하류 지역으로, 項羽가 秦의 函谷關을 점령할 때 주둔한 곳이며, 劉邦과의 미묘한 패권 쟁탈의 시발점이 된 곳이다. 司馬光은 戲下를 중심으로 펼쳐진 函谷關 점령, 鴻門의 연회, 秦의 도읍 咸陽의 燒亡, 諸侯의 分封 등 楚漢의 爭霸라는 큰 사건을 이 시 속에서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詠史詩가 역사 사건을 비평하여 借古諷今하는 데 비하여 이 詠史詩는 역사 사건을 사실적이며 객관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객관적 서술에 편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사 저작의 서술 방식과 흡사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司馬光이 史學家이면서 詩人이라는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겠다.

司馬光은 詠史詩 속에서 禹임금의 治水, 王昭君의 出塞 故事, 陳 後主의 醉生夢死로 인한 亡國, 漢 武帝의 仙術 信奉, 楚漢相爭 등의 역사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以史鑑今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복잡다단한 역사적 사건을 짧은 편폭 속에서 簡明하게 묘사한 점이 돋보인다.

www.kci.go.kr

19) 項羽가 楚 懷王을 명분상으로 존경하는 척하면서 일궈냈던 호칭.

2.2 역사 인물 품평

司馬光이 詠史詩 속에서 품평한 역사 인물은 적지 않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虞·舜·大禹·燕昭王·晉文公·楚懷王·項羽·漢武帝·陳後主 등의 帝王, 季札 등의 王子, 王昭君·楊貴妃 등의 帝妃, 伯夷·叔齊·孟嘗君·呂祿 등의 神하, 李牧·馬援·斛律光 등의 장군, 屈原·晁錯 등의 文士, 田橫 등의 將士, 鄭子眞 등의 隱士를 들 수 있다. 司馬光은 이런 역사 인물에 대한 品評을 통하여 자신의 歷史觀을 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北宋 당대에 교훈으로 삼고자 하였다. 위에 언급한 역사 인물 중에서 帝王에 대한 품평은 2장 1절 역사 사건 비평편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절에서는 주로 王子·帝妃·신하·장군·文士·隱士 등을 제재로 한 詠史詩를 분석하고자 한다.

司馬光은 <五哀詩> 속에서 楚의 屈原, 趙의 李牧, 漢의 晁錯·馬援, 齊의 斛律光 등 충성스런 불세출 인재의 陋名을 벗기고 후세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그는 이러한 창작 취지를 이 시의 并序에서 분명하게 밝혔다.

공자는 말 잘하는 입이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을 미워하였다.²⁰⁾ 심하도다! 참소의 해로움을 일일이 매거할 수가 없다. 살펴보건대, 戰國 이래 楚의 屈原, 趙의 李牧, 漢의 晁錯·馬援, 齊의 斛律光은 모두 세상에 보기 드문 재주를 지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였으나, 결국 참소에 시달려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정착할 곳을 얻지 못하여 죽었다. 대개 나라도 그들을 따라 폐허가 되고 말았으니, 그 허물은 크게 슬퍼할 만한 것이다. 이러한 즉 그 일들에 기인하여 <五哀詩>를 지어 후세에 경계하고자 한다.²¹⁾

司馬光은 五人의 忠直之士가 奸臣들의 참소를 당하여 억울한 누명 속에 幽明을 달리한 역사를 시에 객관적으로 반영하면서 昏愚한 황제를 비판하고 있다. 먼저 <五哀詩> 중의 <屈平>²²⁾에 주목하여 보자.

20) 《論語·陽貨》: 子曰; 惡紫之奪朱也, 惡鄭聲之亂雅樂也, 惡利口之覆邦家者.

21)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377쪽, <五哀詩 并序>: 孔子惡利口之覆邦家者. 甚矣, 諷之爲害, 不可一二數也. 聊觀戰國以來, 楚之屈原, 趙之李牧, 漢之晁錯, 馬援, 齊之斛律光皆負不世之才, 竭忠於上, 然卒困於讒, 不能自脫, 流亡不得其所而死. 或者國隨以丘墟, 此其尤可大哀者也. 因卽其事作<五哀詩>, 且以警後世云.

白玉徒爲潔，
幽蘭未謂芳。
窮羞事令尹，
疏不忘懷王。
冤骨消寒渚，
忠魂失舊鄉。
空餘楚辭在，
猶與日爭光。

백옥은 홀로 순결하고
유란은 이처럼 향기롭다고 한 적이 없었네.
부끄러움을 다하여 영운을 섬기고
소원해도 회왕을 잊지 않았네.
원통한 뼈는 차가운 물가에 사라졌건만
충혼은 옛 고향을 잃었네.
공허히 초사만 남아 있어
해와 빛을 다투고 있네.

이 시는 먼저 屈原의 고결한 인품과 憂國表情을 읊고 있다. 이어서 反秦을 주장하는 屈原의 直言은 도외시하고, 親秦을 주장하는 간신의 讒訴를 그대로 믿다가 秦에게 멸망한 楚 懷王의 愚昧함을 비판하고 있다. 즉 간신의 참언에 눈이 멀어 유능한 충신을 배척함으로 인하여 국가의 패망을 초래한 역사적 사실을 예시함으로써 당시 北宋의 神宗 황제에게 勸戒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五哀詩> 중의 <馬伏波>²³⁾에 주목하여 보자.

漢令班南海，
蠻兵避郁林。
天涯柱分界，
徼外貢輸金。
坐失奸臣意，
誰明報國心。
一棺忠勇骨，
漂泊瘴煙深。

한나라 명령으로 남해로 돌아가고
남방 병사는 옥림으로 피했네.
하늘 끝에 기둥을 세워 경계를 나누고
변경 밖에서 세폐를 바치도록 했건만.
간신의 의도를 좌시하였으니
누가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밝혀주리오?
관 속의 충성스럽고 용맹스런 뼈가
瘴氣 연무 짙은 곳을 떠돌아다니네.

後漢 光武帝 시대의 용맹한 伏波將軍인 馬援이 남방 지역 등을 평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신들의 시기와 讒訴로 인하여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원인을 光武帝의 昏愚의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馬援은 평소 청렴하고 공평하며 우국지심이 강해 심지어 62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南征하던 중 病死했건만, 죽어서도 모략에 빠져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司馬光은 이러

22)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382쪽.

23)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384-385쪽.

한 시를 통하여 光武帝의 昏庸을 비판함으로써 황제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馬援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음에는 <孟嘗君歌>²⁴⁾에 주목하여 보자.

君不見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薛公在齊當路時,	설공이 제나라에서 要職을 맡고 있을 때
三千豪士相追隨。	삼천 호걸들이 서로 추종하였음을.
邑封萬戶無自入,	봉령은 만호에 달했지만 수입이 없었는데
椎牛釀酒不爲賁。	소 잡고 술까지 빚어버려 돈을 회수하지 못했지만
門下紛紛如市人,	문하가 성대하여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鷄鳴狗盜亦同塵。	계명구도하여 속됨을 같이 했네.
一朝失勢賓客落,	하루 아침에 세력을 잃자 빈객들이 떠나가고
唯有馮驩西入秦。	오로지 풍환만이 서쪽으로 진나라에 들어갔네.

이 시는 《史記·孟嘗君列傳》의 기술처럼 孟嘗君의 일대기를 짧은 편폭 속에서도 簡明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또한 ‘하루 아침에 세력을 잃자 빈객들이 떠나가고’라고 하면서 孟嘗君이 부양한 식객들이 철새처럼 권세를 쫓아 따라다니는 의리없는 무리들이라고 풍자하고, 孟嘗君이 養士에 뛰어나지 못했음을 嘲笑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평가는 그의 《資治通鑑》에서의 관점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신 사마광이 아쉽니다.

군자가 선비를 양성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역》에서 말하기를 ‘성인이 현명한 사람을 양성하면 만백성에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 —— 지금 맹상군이 선비들을 양성하는 데는 지혜롭거나 어리석음에 마음을 쓰지 않고, 선한지 아닌지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그 임금의 녹봉만 도적질함으로써 사사로운 무리를 세워 허황한 칭찬만을 크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위로는 그 임금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그 백성들을 좀먹게 하는 것이니, 이는 간사한 사람들의 영웅이지, 어찌 숭상할 만하겠습니까!²⁵⁾

24)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28쪽.

25) 司馬光 編著, 胡三省 音注, 《資治通鑑》, 上海古籍出版社, 1987 (이하 書名만 밝힘), 15쪽, <周紀 二>: 臣光曰: 君子之養士, 以爲民也. 易曰: 聖人養賢以及萬民. —— 今孟嘗君之養士也, 不恤智愚, 不擇臧否, 盜其君之祿, 以立私黨. 張虛譽. 上以侮其君, 下以蠹其民. 是姦

또한 정치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있었던 개혁파의 領袖 王安石의 <讀孟嘗君傳>의 관점과도 매우 흡사하다고 하겠다.

세상에서는 모두 “孟嘗君이 선비를 얻을 줄 알았으므로 선비들은 그에게 모여들었고, 마침내 그들의 힘을 입어 범과 표범같은 秦나라를 탈출했다.”고 말하였다. 아아! 孟嘗君은 단지 닭의 울음 소리를 흉내내고 개를 도둑질하는 무리들의 우두머리일 뿐인데, 어찌 선비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랴?²⁶⁾

이 글은 《史記·孟嘗君列傳》에 대한 독후감이다. 王安石은 여기에서 “孟嘗君能得士”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비판하면서 “士”의 표준을 제시하고 인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²⁷⁾ 보수파인 司馬光과 개혁파인 王安石이 정치적으로는 대립하고 있었지만, 人材觀에서 있어서는 일치되는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어서 <田橫墓>²⁸⁾에 초점을 맞춰보자.

昔時南面并稱孤,	옛날에 남면하여 孤 ²⁹⁾ 라고 병칭하였는데, ³⁰⁾
今日還爲絳灌徒.	지금은 돌아와 絳侯 ³¹⁾ ·灌嬰의 무리가 되었네.
忍死只能添屈辱,	죽음을 참는 것은 단지 굴욕을 더할 수 있을 뿐이고
偷生不足愛須臾.	구차하게 사는 것은 순간을 사랑하는 것만 못한 법.
一朝從殉傾群客,	하루 아침에 못 빈객들이 좇아 죽었으니
千古生風激懦夫.	천고에 바람을 일으키고 나약한 사람들을 격하게 했네.
直使強顏臣漢帝,	설령 과립치한 얼굴로 한나라 황제의 신하가 됐다면
韓彭未必免同誅.	한신·팽월과 같이 주살됨을 면할 수 없었으리라.

이 시의 第一·二句에서는 예전에 漢王과 동등한 신분이었던 齊王 田橫이 패

人之雄也, 烏足尙哉.

26) 《王荊公文集箋註》, 王安石 撰, 李之亮 箋註, 巴蜀書社, 2005. 1182쪽 : 世皆稱孟嘗君能得士, 士以故歸之, 而卒賴其力以脫於虎豹之秦. 嗟乎! 孟嘗君特鷄鳴狗盜之雄耳, 豈足以言得士?

27) 拙著, 《王安石 經世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277쪽 참조.

28)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460-463쪽.

29) 孤는 왕자 또는 제후의 겸칭.

30) 이전에 田橫이 齊王이었을 때는 漢王 劉邦과 똑같은 王의 신분이었음을 의미한다.

31) 絳侯는 周勃을 가리킨다.

망한 포로 신세가 된 처지를 서술하고 있다. 第三·四句에서는 漢高祖 劉邦이 田橫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田橫의 죄를 사면하고 부르자, 漢의 신하로서 漢高祖를 섬겨야 하는 치욕을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결하는 결연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資治通鑑》의 기술과 매우 흡사하다.³²⁾ 第五·六句에서는 田橫을 시위하여 洛陽으로 가던 빈객 두 명과 섬에 남아있던 빈객 500여 명이 모두 田橫을 좇아 죽은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田橫의 德治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마지막 第七·八句에서는 비굴하게 한나라 황제의 신하가 되어, 韓信·彭越처럼 날조된 죄명으로 불명예스럽게 죽을 수 없다는 田橫의 굳은 절개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동시에, 漢나라 황제의 大臣들에 대한 무모한 誅殺을 비평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司馬遷의 《史記·田儻列傳》에서의 관점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나 太史公은 이렇게 생각한다.

田橫의 고결한 절개는 빈객들이 그 절의를 사모하여 田橫을 좇아 죽으니, 어찌 지극히 현명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래서 列傳에 올리는 것이다.³³⁾

司馬遷 역시 고상한 지조를 지켜 변하지 않는 田橫의 절개를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詠史三首 其二>³⁴⁾에서도 劉向의 《新序·節士》 편과 司馬遷의 《史記·吳太伯世家》 편에 실려있는 季札의 행적을 근간으로 삼고, 信義가 사람이 지녀야 할 중요한 德性임을 강조하였다.

延陵腰利劍,
上國使初通.
待我周遊遍,

연릉 계찰은³⁵⁾ 허리에 날카로운 검을 차고
中原의 나라를 사신으로 처음 돌아다니게 되었네.
자신이 두루 주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32) 《資治通鑑》72쪽 : 曰: 田橫來, 一未至三十里, 至尸鄉廩置, 因止留, 謂其客曰: 橫始與漢王俱南面稱孤, 今漢王爲天子, 而橫乃爲亡虜, 北面事之, 其恥固已甚矣, 一縱彼畏天子之詔, 不敢動, 我獨不媿於心乎. 且陛下所以欲見我者, 不過欲一見吾面貌耳. 今斬吾頭, 馳三十里間, 形容尙未能敗, 猶可觀也. 遂自剄, 令客奉其頭, 從使者馳奏之.

33) 太史公曰: 田橫之高節, 賓客慕義而從橫死, 豈非至賢! 余因而列焉.

34)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343-344쪽.

35) 季札이 延陵 땅의 封侯였으므로 이렇게 일컬었다.

逢君遺奠終。	임금을 만나 검을 바치려 하였으나 사망하고 말았네.
晶筵繫高樹，	번듯번듯 빛나는 검을 높은 나무에 걸었는데
蕭瑟動寒風。	쓸쓸하게 찬 바람이 일더라.
誰敢欺生死，	누가 감히 생전(에 마음먹은) 약속을 사후에 어기랴!
蒼蒼照爾衷。	창창하게 이러한 진심이 빛나리.

이 시는 '季札繫劍 成語'의 유래를 題材로 삼고 마음 속 약속을 지킨 季札의 굳은 信義를 구체적으로 읊고 있다. 이 시의 第一・二句에서는 吳王 壽夢의 四男 季札이 王位는 장자가 이어야 한다며 사양하고, 보검을 차고 中原의 각 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第三・四句에서는 中原의 사신으로 가는 도중에 徐나라 王을 알현하자 徐王이 자신의 보검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사신의 신분으로 中原의 각 나라를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보검을 徐王에게 바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치려고 마음먹었는데, 徐나라에 도착해보니 徐王이 이미 사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第五・六句에서는 季札이 자신의 보검을 풀어 徐王 무덤가의 나무에 걸어놓고 떠나는 장면을 찬 바람이 기탁하여 쓸쓸한 분위기를 생동감있게 그려내고 있다. 마지막 第七・八句에서는 처음에 이미 마음 속으로 다짐한 약속을 徐王이 죽었다고 해서 저버리지 않는 季札의 고결한 道義가 영원히 빛을 발하리라고 稱頌하고 있는 것이다.

司馬光是 또한 詠史詩 속에서 역사 이래로 진정한 隱士를 읊음으로써 隱逸之士에 대한 존숭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詠史三首 其一>36)

不事王侯者，	왕후를 섬기지 않고
修然鄭子眞。	마음을 가다듬은 사람은 정자진이네.
開田谷口美，	밭을 개간하니 곡구가 아름답고
荷鋤白渠春。	봄에는 가래를 짚어지고 도랑을 손질했네.
德化移鄉曲，	덕화가 마을에 전해져

聲光動搢紳。	명성이 벼슬아치들 사이에서 자자했었지.
一時鐘鼎貴，	한 때 공훈을 鐘鼎에 새긴 귀한 사람들은
磨滅彼何人。	누구인지 마멸되어 버렸네.

鄭子眞은 漢代 褒中 사람 鄭樸의 字로서, 그는 谷口라는 척박한 땅에서 밭을 갈며 묵묵히 도를 닦고 지냈던 隱士이다. 司馬光은 이 시를 통하여 成帝 때 명성이 京師에 자자하여 대장군 王鳳이 예를 갖추어 그를 초빙하였지만, 응하지 않고 은거하며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修道로 일관했던 鄭子眞의³⁷⁾ 고결한 인품에 대하여 흠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의 시 <樂>³⁸⁾에서도 隱士를 선망하며 은거 생활을 추구하는 자태를 찾아볼 수 있다.

吾心自有樂，	내 마음은 스스로 즐거움이 있거늘
世俗豈能知。	세속에서는 어찌 알 수 있으랴?
不及老萊子，	楚의 은사 老萊子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多於榮啓期。	春秋 시기 은사 榮啓期보다는 즐거움이 많네.
緇袍寬稱體，	거친 옷이지만 몸에 넉넉하게 맞고
脫粟飽隨宜。	거친 현미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다네.
乘興輒獨往，	흥을 타서 문득 홀로 떠나고
携筇任所之。	짚은 죽장이 가는 대로 몸을 맡기네.

자신의 은거생활이 춘추 시대 말기, 楚나라 隱士 老萊子の 즐거움³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春秋 시기 隱士 榮啓期の 즐거움⁴⁰⁾보다는 더욱 많다고 하면서 衣食이 빈천한 은거의 삶 속에서도 자기 만족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洛陽의 <獨樂園>에 은거하면서 ‘죽장이 가는 대로 몸을 맡기네’ 탈속적이고 자유분

37) 《漢書·王貢兩龔鮑傳序》：谷口有鄭子眞，蜀有嚴君平，皆修身自保，非其服弗服，非其食弗食。成帝時，元舅大將軍王鳳以禮聘子眞，子眞遂不諛而終。

38)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317쪽.

39) 난세를 피하여 蒙山 기슭에서 농사를 지었다. 楚王이 그가 인재임을 듣고 불렀지만 응하지 않고 은거하였는데, 늙은 부모를 즐겁게 헤드리려고 일흔 나이에 어린아이기 입을 색 동옷을 입고 재물을 부린 일화가 있다.

40) 그는 사람으로 태어난 즐거움, 남자로 살아가는 즐거움, 장수하는 즐거움 등 세 가지 즐거움을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유희자적하게 살았다.

방한 隱士의 삶을 지향하였던 것이다.⁴¹⁾

司馬光은 詠史詩를 통하여 帝王의 昏愚를 비판함으로써 참소로 억울함을 당한 역사 인물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였으며, 節義之士의 굳은 節概와 道義, 隱士의 고결한 인품을 표양함으로써 후대에 귀감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2.2 人生無常 기탁

司馬光은 遺蹟·祠堂 등을 답사하여 느낀 역사 인물과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감회를 詠史詩에 기탁하였다.

먼저 <過故洛陽城 二首 其一>⁴²⁾을 살펴보자.

四合連山繚繞青,	사방이 이어진 산들의 푸르름으로 둘러싸고
三川滉漾素波明.	세 강은 ⁴³⁾ 깊고 넓은데 흰 물결이 밝네.
春風不識興亡意,	봄 바람은 흥망을 알지 못하고
草色年年滿故城.	풀빛만 해마다 옛 성에 가득하누나.

熙寧三年(1070), 王安石과의 保革 갈등의 정치적 구도 하에서 外任을 자청하여 知永興軍으로 부임하는 도중에 洛陽을 지나가면서 느낀 감회를 읊고 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의 흥망성쇠를 회고하며 덧없는 人間事를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虎牢關>⁴⁴⁾을 살펴보자.

天險限西東,	천연 요새가 서쪽과 동쪽의 경계가 되니
難知造化功.	조물주의 신통함을 알기 어렵네.
路邀三晉會,	방책이 삼진을 연합하도록 하여 ⁴⁵⁾

41) 拙稿, <司馬光의 洛陽 隱逸時期 詩 연구>, 《中國學論叢》 제41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3.8, 93-94쪽 참조.

42)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306-307쪽.

43) 東周 시대에 河·洛·伊水를 三川이라 일컬었는데, 즉 洛陽을 지칭했다.

44)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309쪽.

勢壓兩河雄.	세력이 양하의 ⁴⁶⁾ 우두머리를 제압했네.
餘雪沾枯草,	잔설은 마른 풀을 적시고
驚颺捲斷蓬.	놀란 회오리바람은 쭉을 베어서 말아올리네.
徒觀爭戰處.	헛되이 전쟁터를 바라보니
今古索然空.	오늘이나 옛날이나 쓸쓸하고 공허하구나!

시의 제목인 虎牢關은 汜水關·行慶關이라고도 하는데, 洛陽의 동쪽 즉 지금의 河南省 滎陽市 汜水鎮 境內에 있는 천연의 요새지로서, 春秋戰國時代 이래 격렬한 쟁탈전이 벌어졌던 격전지였다. 이 시의 第三·四句에서는 戰國時代 趙나라가 趙·韓·魏의 三晉 연합으로 秦나라와의 兵禍를 피한 역사 사건을 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第七·八句에서는 그 당시 영웅호걸도 다 사라지고 삭막하고 을씨년스런 분위기에 휩싸인 그 옛날 전쟁터를 회상하면서 인생무상을 체감하고 있다.

다음에는 <夷齊>⁴⁷⁾ 를 살펴보자.

夷齊雙骨已成塵,	백이 숙제 두 골은 이미 먼지가 되었건만
獨有清名日日新.	오로지 청렴의 명망은 나날이 새로워졌네.
餓死溝中人不識,	굶어 죽은 도랑 속 사람을 알지 못하니
可憐今古幾何人.	가련한 사람들 금석에 얼마나 되리오!

靑史에 길이 남을 伯夷·叔齊의 고결한 지조와 청렴을 읊으면서, 死後에 묻히고 만 그들의 명성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時空을 넘나드는 史學家로서의 司馬光의 면모가 드러나 보인다.

다음에는 <燕臺歌>⁴⁸⁾ 에 주목하여 보자.

萬古蒼茫空盛衰,	만고는 아득한데 성쇠가 공허하고
燕臺賢客姓名誰.	연대의 현명한 빈객의 이름은 누구였던가?
君看碣石岩中草,	그대는 보는가? 갈석산 바위의 풀이

45) 三晉은 戰國時代 趙·韓·魏 삼국을 통틀어서 가리킨다.

46) 兩河는 黃河 남쪽과 북쪽 지역인 河南과 河北을 가리키며, 즉 秦나라를 의미한다.

47)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95쪽.

48)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41쪽.

寧似昭王擁篲時.	어찌 소왕이 비를 잡던 시절과 닮을 수 있으리오!
黃金散盡餘基沒.	황금은 흩어져 다하고 옛터도 사라지고
易水蕭條烽火飛.	역수는 스산한데 봉화만 훑날렸네.

이 시는 戰國時代 燕나라 昭王의 王業을 제재로 삼고 있다. 第一・二句에서는 소왕이 燕臺를 축조하여 천하의 賢士들을 우대하며 자문을 구한 역사를 기술하고, 昭王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한편으로는 一國의 흥망성쇠가 부질없음을 개탄하고 있다. 第三・四句에서는 학자 鄒衍이 燕으로 가자 昭王이 비를 들고 길을 쓸어서 앞장을 서고 제자들의 자리에 끼어서 학업 받기를 청하며⁴⁹⁾ 鄒衍을 스승으로 섬겼던 사례를 들고 昭王의 賢士들에 대한 존경과 겸양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第五・六句에서는 燕나라가 위급하였을 당시, 秦王을 암살하기 위하여 荊軻를 자객으로 보내면서 배웅할 때, 형가가 읊었던 시⁵⁰⁾를 떠올려 燕나라의 패망을 회상하며 허무한 역사에感慨하고 있다.

이어서 <華清宮>⁵¹⁾에 초점을 맞춰보자.

新豐鷄犬稀.	신평엔 ⁵²⁾ 닭과 개 드물지만
薊北馬秋肥.	계북엔 말이 가을에 살찌네.
金殿翠華去.	금빛 궁전엔 천자 깃발은 떠나고
玉階紅葉飛.	옥 섬돌엔 단풍이 날리네.
荒林上路廢.	황폐한 숲엔 길이 없어지고
溫谷舊流微.	온천 계곡은 오래되어 줄기가 미미하네.
嗟此非人事.	아! 이것은 인사가 아니던가!
何須問是非.	어떻게 모름지기 옳고 그름을 물어야 하나?

이 시의 제목 華清宮은 周代 이후 唐에 이르기까지 秦・漢을 비롯한 역대 왕조의 별장이었다. 시인은 玄宗과 楊貴妃와의 로맨스를 비롯한 역대 황제의 풍류지였던 華清宮이 唐代 安祿山の 亂으로 소실되어 폐허가 된 모습 속에서

49) 《史記·孟子荀卿列傳》: (鄒衍)如燕, 昭王擁篲先驅, 請列弟子之座而受業.

50) 風蕭蕭兮易水寒, 壯士一去兮不復還. 探虎穴兮入蛟宮, 仰天噓氣成白虹.

51)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307-308쪽.

52) 臨潼縣 동북쪽에 있었던 옛 성으로, 臨潼縣 남쪽에 있었던 華清宮의 인근 지역이다.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있다. 그 찬란했던 華淸宮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황제와 함께 역사의 뒀안길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또한 華淸宮의 황량한 분위기 속에서 역대 왕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나라의 흥망 성쇠가 人事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에는 <呂祿廟>⁵³⁾를 살펴보자.

赤帝祚四百，
徒然諸呂謀。
出遊逢友賣，
未返見家收。

蔽冢昔無記，
遺祠今幸留。
士心俱左袒，
何怨曲周侯。

적제⁵⁴⁾ 유방이 (漢을 세워) 福을 누린 것이 사백년이있건만
부질없이 여씨 일당이 모의를 했네.

(酈寄는) 사냥을 구실로 친구(呂祿)를 유인해 팔았고
(李延年 가족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衛律은) 돌아오지
않았네.

무덤을 덮어 가렸으니 옛 기록은 없으나

사당은 지금도 다행히 남아있네.

병사들의 마음은 똑같이 왼쪽 소매를 드러냈으니

어찌 곡후주인 酈寄를 원망하라!

이 시는 呂太后의 조카로, 北軍을 지휘하며 呂太后의 全權을 보필했던 上將軍 呂祿의 사당을 답사하고 느낀 감회를 읊고 있다. 이 <呂祿廟>시는 漢 高祖 劉邦의 死後, 呂后 일당의 專權과 몰락의 역사를 짚은 편폭 속에서도 簡明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각 詩句에 반영된 歷史 사건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기로 하겠다.

第二句에서는 漢 高祖 劉邦의 사망 이후, 呂后를 비롯한 呂氏 一族의 권력 장악의 모의를 기술하고 있다. 第三句에서는 呂太后가 죽자, 周勃과 陳平을 중심으로 呂氏 一族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워, 北軍을 관장하고 있던 呂祿을 제거하기 위하여 呂祿과 친구인 酈寄를 이용하여 사냥을 구실로 呂祿을 유인해내어 北軍을 장악하려고 한 사건을⁵⁵⁾ 묘사하고 있다. 第四句에서는 李陵 장군이 흥

53)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356-358쪽.

54) 원래 赤帝는 五方神將의 하나로서, 여름을 맡아보는 남쪽의 神인데, 五行說에 의해 漢은 火德에 속한다 하여 赤色을 숭상하였으므로 漢 高祖 劉邦을 상징하기도 하며, 또는 赤帝子라고도 일컬었다.

노에 투항한 이후, 李延年의 추천으로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한 衛律이 李延年의 가족이 몰살되는 것을 보고 연좌될까봐 두려워하여 흉노에 투항한 사건을 묘사하고 했다. 第七句에서는 酈寄에게 속아 인세를 풀고 北軍을 떠난 후, 太尉 周勃이 北軍의 軍門에 들어서서 병사들에게 “呂氏를 위하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劉氏를 위하면 왼쪽 어깨를 드러내라!”고 하자 병사들이 모두 왼쪽 어깨를 드러냄으로써 북군을 장악한 사건을⁵⁶⁾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 第八句에서는 비록 酈寄가 친구인 呂祿에게 의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였지만, 呂氏 一族의 專橫을 제거하고 劉氏 漢나라의 정통성을 회복하려는 명분이 타당하였기 때문에 酈寄를 원망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資治通鑑》의 관점을 시를 통하여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班固가 찬탄하였다.

孝文帝 때 천하에서는 역기가 친구를 팔았다고 하였다. 무릇 친구를 판 것은 이익을 보고 의리를 잊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역기처럼 아버지가 공신이면서도 또 잡혀 위협을 당하였다면, 비록 여록을 꺾더라도 사직을 안정시켰으니, 마땅히 군주와 아버지를 살아남게 하는 데 있었으니, 옳은 것이다.⁵⁷⁾

이어서 <野廟>⁵⁸⁾를 살펴보자.

古廟崩榛在,	옛 사당은 무너져 서까래만 남아 있고
墻間雜樹荒.	담장 사이 잡목은 황폐하네.
依稀餘像設,	어렴풋이 영정이 남아 있는데
寂寞闕祠堂.	적막하게 사당은 닫혀 있네.
舊日牲廬地,	옛날 희생 수태지를 바치던 곳은
今晨狐兔鄉.	오늘 새벽엔 여우와 토끼 마을이 되었네.
英靈如未滅,	영령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듯한데

55) 훗날 이러한 사건을 두고, “見利忘義”라고 하였다.

56) 《漢書·高祖本紀》: 祿遂解印屬典客, 而以兵授太尉勃. 勃入軍門, 行令軍中曰: 爲呂氏右袒, 爲劉氏左袒. 軍皆左袒. 勃遂將北軍.

57) 《資治通鑑》 88쪽 : 班固贊曰: 孝文時, 天下以酈寄爲賣友. 夫賣友者, 謂見利而亡義也. 若寄父爲功臣而又執劫, 雖摧呂祿以安社稷, 諠存君親, 可也.

58)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355-356쪽.

何以度淒涼.

얼마나 처량하게 지내고 있을까?

서까래만 남아있는 사당에서 생전에 권세를 누리다가 死後에 처량한 처지가 된 故人の 어림없는 영정을 보면서 덧없는 인생을 실감하고 있다. 희생을 바쳐 제사를 지내던 곳이 여우와 토끼들의 놀이터로 변한 현실 앞에서 시인은 故人에 대한 추모의 정마저 사라진 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 시를 통하여 시인은 인생의 허무감을 表露하고 있는 것이다.

司馬光은 답사한 遺蹟·祠堂 등을 마주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와 영웅호걸의 인생역정을 회고하면서 느낀 人生無常을 詠史詩 속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4. 結論

本稿는 司馬光의 문학적 위상을 평가하는 선행단계의 일환으로, 司馬光의 詠史詩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고찰하였다. 특히 그의 역작 史書인 《資治通鑑》에서 평가된 역사 사건, 역사 인물 등이 그의 詠史詩 속에서는 어떻게 形象化되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그의 시인으로서의 문학적 자질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의 詠史詩의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주제별로 크게 역사 사건 평가, 역사 인물 품평, 인생무상 기탁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각 주제별로 詠史詩 속에 반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司馬光은 역사상 큰 사건이나 후대에 논쟁거리가 된 사건, 즉 禹임금의 治水, 王昭君의 出塞 故事, 陳 後主의 醉生夢死로 인한 亡國, 漢 武帝의 仙術 信奉, 楚漢相爭 등의 역사 사건을 詠史詩의 중심 題材로 삼고, 역사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以史鑑今하고자 하였다.

둘째, 司馬光은 詠史詩를 통하여 역사 인물에 대한 品評을 통하여 자신의 歷史觀을 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帝王의 昏愚를 날카롭게 비판함으로써 참소

로 억울함을 당한 역사 인물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였으며, 節義之士의 굳은 節概와 道義, 隱士의 고결한 인품을 表揚함으로써 후대에 귀감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셋째, 司馬光은 遺蹟·祠堂 등을 답사하여 느낀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 인물에 대한 감회를 詠史詩에 기탁하였다. 즉 역사의 뒀안길로 자취를 감추고 만역대 왕조와 영웅호걸의 역정을 회고하면서 느낀 人生無常을 詠史詩 속에 실었던 것이다.

司馬光의 詠史詩 역시 대부분의 詠史詩처럼 역사 사건이나 역사 인물을 비평하여 借古諷今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띠기는 하지만, 역사 사건과 역사 인물을 사실적이며 객관적으로 그려내려는 경향이 더욱 농후하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것은 일종의 객관적 서술에 편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역사 저작의 서술 방식과 흡사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司馬光이 史學家이면서 詩人이라는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다. 또한 司馬光의 詠史詩의 특징으로는 복잡다단한 역사적 큰 사건이나 역사 인물의 인생 역정을 짧은 편폭 속에서 함축적으로 簡明하게 묘사한 점을 꼽을 수 있겠다.

< 參考文獻 >

- 司馬光 撰, 李之亮 箋註, 《司馬溫公集 編年箋註》, 巴蜀書社, 2008.
 司馬光, 《司馬文正公傳家集》, 臺灣商務印書館, 1968.
 李昌憲, 《司馬光評傳》, 南京大學出版社, 2002.
 向有強, 《司馬光事迹詩文繫年》, 廣西師範大學, 碩士論文, 2010
 宋衍申, 《司馬光評傳》, 廣西教育出版社, 1997.
 楊洪杰·吳麥黃 著, 《司馬光傳》, 山西人民出版社, 1997.
 王德保, 《司馬光與資治通鑑》,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
 余飛, 《司馬光詩歌研究》,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王守芝, 《司馬光的詩歌與其思想之關係》,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3.
 張小麗, 《宋代詠史詩研究》, 陝西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 司馬光 編著, 胡三省 音注, 《資治通鑑》, 上海古籍出版社, 1987.
- 권중달 역, 《資治通鑑》, 삼화출판사, 2007.
- 홍석보 역, 《史記列傳》, 삼성출판사, 1989.
- 班固 撰, 顏師古 註, 《漢書》, 中州古籍出版社, 1991.
- 王安石 撰, 李之亮 箋註, 《王荊公文集箋註》, 巴蜀書社, 2005.
- 宋衍申, <司馬光文學成就述論>, 《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제5기, 1987.
- 王德保·楊曉斌, <以史爲鑑與道德評判 - 論司馬光的詠史詩>, 南昌大學學報, 제35권 제5기, 2004.
- 王守芝, <論司馬光的詠史詩>, 河南理工大學學報, 제11권 제2기, 2010.
- 拙稿, <司馬光的 詩觀과 社會詩>, 《中國學論叢》 39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3.
- 拙稿, <司馬光的 洛陽 隱逸時期 詩 연구>, 《中國學論叢》 41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3.

< 中文提要 >

司馬光的詠史詩, 在其詩集中所占比例不大, 不過四十餘首, 但是涉及的歷史事件、歷史人物却不少。他通過對歷史人物的歌詠或道德評判, 不僅表達了作者的歷史觀, 也反映了作者對現實的關照態度。具體表現在:

一. 司馬光在<龍門>、<謁三門禹祠>、<和王介甫明妃曲>、<詠史 其三>、<讀漢武帝紀>、<示道人>、<戲下歌>中, 讚譽以德平定天下的聖王。他認為作爲一國之君, 只有不斷修正錯誤, 勇於納諫, 纔能夠最終受到人民的愛戴。與對聖君的讚揚相反, 他對昏君也進行了批評, 在詩歌中實現了一套比較完整的美刺體系。

二. 司馬光在<屈平>、<馬伏波>、<孟嘗君歌>、<田橫墓>、<詠史三首 其二>中借古人事來勸諫當朝聖上。他認為奸佞之臣的讒言不但會毀滅忠臣, 而且應當爲一個朝代的政治敗壞或者國家衰亡負責。在<詠史三首 其一>、<樂>中, 表達了隱逸高潔之士。他認為隱士之所以退隱山林, 並不是他們不想爲國家爲人民做事, 而是一種在世無道的情況下明哲保身的措施。

三. 司馬光在<過故洛陽城 二首 其一>、<虎牢關>、<夷齊>、<燕臺歌>、<華清宮>、<呂祿廟>、<野廟>中, 流露了對世事無常的無奈和感慨。他還從歷史的盛衰興亡和

對現實的切身體驗中，悟出了社會人生的哲理，一切朝代的興亡盛衰，英雄的榮辱得失，都在歷史長河中轉瞬即逝。

司馬光的詠史詩相對來有其自己的特色，較少運用技巧，而善用平實質朴的語言表情達意，不事華藻不假雕飾，就是以鋪為主，講述史實，平鋪直敘。

關鍵詞：司馬光、詠史詩、歷史事件、歷史人物、人生無常、以史為鑑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12. 31.	2014. 2. 4.	2014. 2. 20.	2014. 2. 24.	2014. 2. 28.